

독일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고찰

독일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고찰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이 동 규

< 목 차 >

I. 서론	1
II. 독일의 학교폭력	3
1. 폭력의 개념 정의	3
2. 학교폭력의 개념	4
3. 독일내 학교폭력 관련 연구	5
4. 학교폭력의 발생 빈도	7
5. 학교폭력의 발현 형태	9
III. 독일 학교폭력의 원인	13
1. 가족내재적 원인	14
2. 사회구조적 이유	15
3. 교내 환경의 영향	18
IV. 독일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19
1. 학교폭력 예방 기본방향	19
2. 중재(Mediation) 프로그램	24
3. 온종일 학교 및 학생 작업장 프로그램	26
4. 학교폭력 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27
5. 폭력예방을 위한 행정적·법적 조치	28
6. 소년법과의 관계	29
7. 다이버전(Diversion)	30
8. 독일 학교폭력 대처방안의 의의	32
V. 맺음말	33
[참고문헌]	35

1. 서론

학교주변 폭력배로 인한 학부모, 학생의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아이들간 집단 따돌림, 소위 “왕따”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 한국사회에서 유·무형의 학교폭력 문제는 이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더욱이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은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날로 연소화·흉폭화 하는 형사범죄의 근간에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습득하고, 연습하며, 활용하는 장(場)으로서의 학교가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외국 특히,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원인과 그들의 대응방안을 고찰하고,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청소년 및 학교폭력의 방지 및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총기소지가 가능하고 폭력 영상물이 난무하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의 빈도와 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2002년 4월 26일 옛 동독지역 도시인 에어푸르트(Erfurt)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총기 난사사건¹⁾은 독일의 학교폭력 수준의 심각성을 사회여론화 시키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고,

2006년 4월 베를린(Berlin)의 노이켈른(Neuköln) 구역에 있는 뤼틀리 중고등학교(Rütli-Hauptschule²⁾)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경찰보호 요청

1) 이미 몇 개월 전에 대학입학자격고사(Abitur)에 실패할 것이 두려워 의사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시험에 불참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사격과 컴퓨터 게임으로 생활하던 19살의 로버트는, 대학입학자격고사가 실시되는 날 학교에 방문하여 14명의 교사와 2명의 학생 그리고 1명의 경찰관을 총기로 사살한 뒤 자살하였다. 그의 부모는 퇴학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동료학생이나 교사들도 그를 조용하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신희경, 학교폭력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육정책포럼, 제113호, 한국교육개발원, 2005, p. 23.

사건은³⁾ 독일의 매스 미디어가 주요 관심사로 다루고 그 내용이 범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물론 독일 통일 이후 독일사회에서 청소년 폭력문제는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1992년 이후 독일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주요한 사회과학의 연구테마로 인식되어 독일의 범죄학자,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 사이 수 많은 실증적 조사연구가 행해진 바 있다.

그 결과, 폭력(Gewalt)은 여러가지 발현형태와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 언어(Sprache)와 집단 따돌림(Mobbing)을 통한 폭력은 결코 단편적 원인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독일이 택한 학교폭력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관련 프로그램이 우리의 현실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독일의 중등교육과정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대학에 들어가려는 학생은 김나지움(Gymnasium), 전문 직업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레알슐레(Realschule),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에 진학한다. 게잠트슐레(Gesamtschule)는 종합학교로 번역되며 위의 과정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다. 즉, 본문의 Hauptschule는 그룬트슐레(Grundschule, 초등학교) 수료 후 김나지움(Gymnasium, 초등학교와 대학교를 연결하는 9년제 중등학교)이나 레알슐레(Realschule, 실업계 중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이 다니게 되는 의무교육 과정으로서 우리의 5~9학년에 해당한다.

3) "... 베를린의 한 중등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막아달라며 경찰의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독일에서는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베를린 노이켈른 구역에 있는 뤼틀리 하우프트슐레의 교사들은 베를린시 교육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더 이상 학생들의 폭력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니 학교 내에 경찰을 배치해 주거나 아예 학교 문을 닫을 것을 호소했다. 뤼틀리 학교 선생님들은 칠판을 향해 돌아서기가 무서울 정도로 학생들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수업에 들어가면서 항상 휴대전화를 통해 구조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편지에서 밝혔다...", "獨 중등학교 교사 3명중 1명 탈진 상태", 연합뉴스, 2006. 4. 8.

II. 독일의 학교폭력

1. 폭력의 개념 정의

폭력(Gewalt)은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여러 종류의 현상이며, 그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어 지는가는 항상 유동적이며 변화무쌍하다.⁴⁾ 즉, 폭력의 개념은 폭력의 행사자가 ‘누구’(Wer)이고, 행사된 폭력에 의해 현재 ‘무엇’(Was)이 발생하였으며, 어떠한 ‘형태’(Form)로 폭력이 행사되었는지 등 개별사례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사례별 개념정의는 ‘왜’(Warum) 폭력이 행해지고 ‘어떻게’(Wie) 정당화 되는지를 고려한다.⁵⁾

개인의 폭력은 오로지 하나의 발현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폭력은 단독 범인에 의해 또는 Peer-group⁶⁾내의 1인에 의해 길거리, 광장 또는 공공기관 내에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거나, 온전한 사적(私的) 영역내에서 가까운 주변인에게 행해진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회적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⁷⁾

본래 폭력이란 용어는 라틴어인 Violentia의 어원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되는데 행사 대상에게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가하는 모든 물리적인 힘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폭력을 물리적인 힘, 다시 말해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인 상처와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심리적 내지는 정신적인 것 까지도 포함한다. 수사관이 범죄혐의자에게 가하는 전기고문이나 물고문은 두말할 필요도 없

4) Imbusch, Der Gewaltbegriff, Westdeutscher Verlag, 2002, p. 51

5) 앞의 책, p. 34.

6) 사회·심리적 동배(同輩), 동료·또래집단

7) 앞의 책, p. 45.

이 폭력에 해당하겠으나, 범죄 혐의자에게 물을 주지 않거나 잠을 채우지 아니하는 행위도 심리적 내지는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므로 이를 우리는 분명히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간접적이면서 심리적 내지는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되는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폭력, 즉 외부에 나타나는 피해나 상처의 경우는 순간적인 충동과 상황 및 환경에 의해 우발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간접적인 심리적 공격성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서 더욱 악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폭력 및 공격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가해자의 의도와 계획에 대한 고려 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폭력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폭력이란 ‘한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과 집단 또는 사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신체적·정신적 내지는 심리적인 상처나 피해를 주는 행위 또는 해치려는 욕구구성향’을 말한다.⁸⁾

2.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Schülergewalt)이란 학교라는 구조물 내지 학생들의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이들 공간내 즉, 학교 내부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의미한다.⁹⁾ 그러므로 이에선 학생 상호간의 폭력, 교사와 학생간의 폭력은 물론 학생들이 교내 기물이나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폭력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8) Kornadt, H.-J. : Aggressionsmotiv und Aggressionshemmung Bd.1 Bern. 1982. p. 82.
(장일순, 독일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통권 제17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9, p 257. 재인용)

9) Tillmann, Schülergewalt als Schulproblem, Juventa, 1999, p. 232.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학생 상호간의 폭력에는 신체적 폭행, 금품 갈취, 협박, 따돌림, 성폭력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일본이나 한국의 일부 학교에서 있었던 ‘이지메’¹⁰⁾와 비슷한 내용의 충격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¹¹⁾ 또한, 교사와 학생간의 폭력은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로서의 폭력과 학생들이 교사에게 가하는 폭력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교사의 체벌이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²⁾

3. 독일내 학교폭력 관련 연구

청소년 폭력문제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자 1992년 독일의 주요 방송매체들은 대대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의 학교가 점차 “미국화” 되어가고 있다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갔지만, 학계의 태도는 비교적 냉담하여 이를 “미디어 현상”으로 단정하고 폐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 이었다. 그러나 빌레펠트(Bielefeld) 대학의 틸만(Tillmann) 교수를

10) 따돌림.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소외시켜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무시 또는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

11) 2004년 5월 25일 오전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힐데스하임(Hildesheim) 지방법원에는 11명의 힐데스하임 베르너 폰 지멘스 직업학교(Hildesheim Berner von Siemens Hauptschule) 학생들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말까지 동급생 디터 데니스(Dieter Denis)를 상시적으로 괴롭히고 굴욕감을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소된 이들은 디터 데니스에게 작업복을 입은 채로 샤워하도록 강요했고, 또 담배를 삼키거나 심지어 머리에 플라스틱 양동이를 씌운 채 소방호스로 두들기고 때리고 짓밟았다. 김종기, 독일의 학교폭력1, 교육개발, 통권 제146호, 한국교육개발원, 2004, p. 15.

12)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을 막아달라며 경찰의 보호를 요청한 뤼틀리 하우스프트슐레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폭력, 학급당 과다한 학생수, 학교생활에 적응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곤란 등의 이유로 독일 김나지움 교사의 1/3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탈진상태에 있다고 독일 교사건강연구소(IGP)가 전했다. “獨 중등학교 교사 3명중 1명 탈진 상태”, 연합뉴스, 2006. 4. 8.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단순히 미디어가 만들어낸 문제로 보지 않고 미디어 수신자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리얼리티”가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¹³⁾

이들에 따르면 90년대 독일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고양된 이유로는 첫째, 1990년의 독일 통일 무렵부터 형성된 외국인 배척풍조와 극우파 젊은이들에 의한 외국인 습격사건의 빈발이다. 외국인 난민 수용시설에 대한 방화와 같은 흉악사건에 놀란 대중들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라는 환경에 새삼 주목하게 된 것이다.¹⁴⁾ 둘째, 학교 내부에서 야기된 논의가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교사들 사이에서 해가 갈수록 학생들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높아갔던 것이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연구자들은 현재 독일 학교의 상황을 “학습 동기의 상실, 잠재적 폭력 경향의 증가”라는 표현으로 요약하고 이미 학교의 분위기는 교사의 대응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정상적인 수업이 곤란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992년 이후부터 학교폭력 문제는 매스미디어 뿐만 아니라 학계, 교육계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여,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조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1992년 함부르크(Hamburg)시를 시작으로 1996년까지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학생·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의 축적에 힘입어 최근에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매스미디어의 논조도 보다

13) Tillmann, Schüलगewalt als Schulproblem, p. 237.

14) 1990년 동서독의 통일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는 학교폭력을 증가시키는 배경적 요인(Hintergrund)이 되었다. 특히, 서독 학제에 따른 동독지역 학교의 통합 내지 개편과정에서 나타난 동독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 동독 시민의 자신감 및 자부심의 상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외국인 노동자의 투입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와 이로 인한 극단적 우익집단의 확산,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 청소년이 겪는 문화적 이질감과 부적응,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이들 가족의 이민 2세 청소년의 정체성 혼란에 따른 학교부적응과 이탈행동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다. 신회경, 학교폭력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p. 27.

차분해지고, 각종 학술세미나나 교원 연수과정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¹⁵⁾

4. 학교폭력의 발생 빈도

매스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고 특히 그것이 교사의 주관적 시각에 따른 진술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는 소식들은, 현 시점 독일사회가 학교폭력의 증가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에서 주장하듯이 실제로 학교폭력이 급증하였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통시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주관적, 단편적 조사의 흠결을 근거로 그러한 교사의 주관적 진술은 필연적으로 억측일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개개의 학교별 상황은 여러 가지로 상이하게 그 특성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폭력이란 현상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피상적인 문제(flächendeckendes Problem)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행태 등 문제영역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이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그간의 독일에서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육체적·신체적 폭력은 직업학교 또는 실업계 학교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고 김나지움에서 가장 드물게 관찰된 반면, 언어적 폭력 및 정신적·심리적 괴롭힘 등은 모든 학교형태에서 동일한 빈도로 나타난다. 연령에 있어서는 13세에서 15세 무렵에 청소년들의 폭력은 정점(Spitze)에 도달하여 이 연령을 넘으면 폭력행위의 빈도나 허용도는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⁷⁾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육체적·신체적 폭력에 있어 학

15) Tillmann, Schüलगewalt als Schulproblem, p. 235.

16) Melzer / Schubarth / Ehninger, Gewaltprävention und Schulentwicklung. Klinkhardt, 2004, p. 23.

17) 앞의 책, p. 14.

교 종류별로 폭력의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하우스프트슐레의 폭력빈도가 김나지움보다 높은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학교별 폭력 증가의 정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1992년의 연구와 최근의 연구를 비교해 보면 집단 패싸움의 경우 김나지움은 1%에서 4%로 증가하였음에 비해, 하우스프트슐레에서는 10%에서 23.4%로 급증하였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최근 20여년간 대학 진학률의 상승에 따라 김나지움의 정원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학생은 소수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정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하우스프트슐레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급격한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욕설,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의 종류에 따라 발생빈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거의 과반수의 학생이 언어에 의한 폭력과 같은 일탈행동을 일주일에 수차례 또는 거의 매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¹⁸⁾

학교에서 발생하는 육체적 상호폭력(싸움)의 규모는 독일 상해보험협회¹⁹⁾의 통계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학교관련 상해의 약 25%가 단순폭행 내지 상호 격렬한 싸움에 기인하고 있다. 그 결과 독일 남녀학생의 1.2%(약 97,000명) 가량이 매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있다.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태도 내지 습성은 남학생들에게서 아주 자주 나타나는데 그들의 이러한 특징은 보다 현저히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신체적인 폭력이건 언어상의 폭력

18) Klewin / Tillmann / Weingart, Gewalt in der Schule, Westdeutscher Verlag, 2002, p. 1079.

19) Bundesverband der Unfallversicherungsträger in Deutschland

이건 모든 종류의 폭력행위에 대한 허용도, 경험도에 있어서 남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²⁰⁾

폭력과 관계된 경험적 추이는 매우 어렵지만 명백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지난 1960년대 이래로 이전에는 계속 감소 추세였던 폭력의 발생빈도가 전 사회적으로 다시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좀 더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책임있게 답하기는 곤란하다.²¹⁾ 물론 집단 패싸움, 공공기물 파괴와 같은 폭력적인 일탈행동은 분명히 증가하였지만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과격한 일탈행동이 일부 소수의 학생들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남녀학생의 상당수는 여전히 폭력적 행동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행동에 관계되지도 않는다.²²⁾

5. 학교폭력의 발현 형태

가. 언어적 폭력

그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신적, 언어적 형태의 폭력이 신체적 폭력행위를 능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²³⁾ 신체적 폭력의 경우 발생 즉시 그 사실이 인지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 비해 정신적 폭력의 경우 가해 또는 피해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개별 폭력형태를 살펴보면 하나의 요소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결합하여 폭력의 상이한 형태를 유발한다.²⁴⁾

20) Koch, Gewalt in der Realschule und Möglichkeiten der Prävention, Tectum Verlag, 2002, pp. 31.

21) Heitmeyer/ Hagan, Gewalt, Westdeutscher Verlag, 2002, p. 20.

22) Melzer / Schubarth / Ehniger, Gewaltprävention und Schulentwicklung, p. 13.

23) 앞의 책, p. 23.

24) Koch, Gewalt in der Realschule und Möglichkeiten der Prävention, p. 29.

언어도발은 모욕·명예훼손(Beleidigungen), 빈정거림(ironische Bemerkungen), 험담·비방(üble Nachrede) 또는 약점의 폭로(Bloßstellen)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때 주로 배설물에서 유래하는 욕이나 성적인 표현 등이 상대에 대한 모욕의 정도를 더하게 하기 위해 함께 사용된다.²⁵⁾²⁶⁾ 언어도발·언어폭력은 그 영향력 측면에서 결코 과소평가되어질 수 없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굴욕을 주며 또는 정신적인 협박을 가함으로써 그들을 통상의 무리에서 소외시킴은 물론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절하 하곤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통상의 육체적 폭력의 경우보다 훨씬 가혹한 피해자가 된다. 이때 희생자의 피해는 정신적 영역에서 발생한다.”²⁷⁾

범죄학자 Von Felten은 ‘청소년의 폭력성 인지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에게 폭력은 전적으로 언어영역에서부터 시작되며, 젊은이들에게 있어 이러한 ‘지각(知覺)의 안테나’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모욕, 욕설 또는 비방을 타인에 대한 농담의 표현 정도로 생각하지만, 반면에 아무 해없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표현이나 악의 없는 대화나 질문은 폭력의 시작으로 인지한다.”²⁸⁾

언어적 표현은 빈번히 갈등 확대의 계기가 된다. 가해자는 이를 의도적으로 도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피해자 또한 이를 도발로 인지하고 받아들인다. 또한 몇몇의 경우에는 폭력적 행위를 유발하기 위해 단지 타인을 단순히 쳐다보는 것 즉, 눈길만으로도 충분하다.²⁹⁾

25) 앞의 책, p. 30.

26) 배설물 이란 뜻의 Scheisse! 라는 표현이 상투적인 욕으로 사용되고 있다.

27) Klewin / Tillmann / Weingart, Gewalt in der Schule, p. 1079.

28) Von Felten, ... aber das ist noch lange nicht Gewalt, Leske+Budrich, 2000, p. 114.

29) 앞의 책, pp. 114.

신체적 폭력에 대한 위협 즉,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역시 정신적 폭력의 일례에 속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당사자에게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을 불러오기 때문이다.³⁰⁾

나. 신체적 폭력

연구에 의하면 학교 안전사고의 1/4은 머리카락 쥐어뜯기나 주먹다짐으로 생긴 것이라고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전체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학생들이 치료를 받는 수는 전체 학생의 1.2% 가량으로 한 해 97,000명에 해당된다. 이를 한 학생이 10년간 학교에 다니는 동안의 평균으로 환산하면 10명 중 한 명의 학생이 학생들간의 싸움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셈이 된다. 그 가운데 1/3은 뇌진탕 또는 뇌출혈을 입고, 1/4은 타박상, 근육 또는 인대 파열, 관절 탈구이며, 10%는 팔 또는 다리가 골절되고 2%는 이가 부러진다.

전체 1,100만명(1995년 추산)의 학생들 중 약 300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에 한 번 이상 무기를 소지하고 왔다. 무기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칼이며, 다음으로 최루가스, 가스총, 손가락에 끼우는 타격고리, 총, 투척용 쇠구슬, 막대기가 이어졌다. 비슷한 시기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베를린 학생의 26%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소지한다고 대답하였다.

또, 독일의 전체 학교 중 절반에서 금품이나 의복을 강탈하거나 갈취하는 사건이 일어나며, 독일 전체 45,000개 학교 중에서 4,000개의 학교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폭행 장소는 바로 학교이다.

30) Koch, Gewalt in der Realschule und Möglichkeiten der Prävention, p. 34.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은 약 70%가 남학생이며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건수는 90%가 남학생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으며, 피해자는 대개 신체적으로 허약한 학생, 소심한 학생, 인기가 없는 학생들이다. 공격적 태도는 사춘기 연령의 나이에서 가장 빈번하며 점점 더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공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보다 대규모 학교에서, 시골 학교에서보다 도시학교에서, 소규모 학급에서보다 대규모 학급에서, 외국인 학생이 적은 곳보다 많은 학교가 폭력행위가 더 많다. 특히 설문에 응한 교사들에 따르면 교사의 19.5%가 독일학생과 외국 출신 학생사이에서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폭력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가장 빈번한 범행장소는 학교 운동장이며, 그 다음이 하교 길목이다. 독일 상해보험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이 폭력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장으로 나왔다.³¹⁾ 이 사실은 휴식시간 중에 학교 운동장을 감독하는 비교적 소수의 교사들조차 학생들끼리의 폭력의 규모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폭력은 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으며, 1995년의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하우스프트슐레에서는 10년 전 보다 두 배로 많은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³²⁾

다. 집단 따돌림

그 밖에 또 하나의 특별한 폭력의 발현형태로 ‘집단 따돌림’(Mobbing 또는 Bullying)이 있다. 이 형태는 육체적·정신적 폭력행사 모두를 포함한다. 이때 필연적으로 피해자-가해자-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때 약하고 열등하여 굴복한 피해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

31) 독일의 경우 각급 학교마다 아스팔트 또는 탄성있는 고무로 만들어진 운동장(Schulhof)이 있으나, 대개의 체육수업은 체육관(Gymnastiksaal)에서 이루어지고, 운동장은 쉬는 시간동안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된다.

32) 김종기, 독일의 학교폭력1, p. 16.

과 학대의 대상이 된다. 소속그룹에서 축출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가해자는 통상 혼자가 아니며 전형적인 일탈자 즉, 아웃사이더(Außenseiter)를 중시한다. 가해자들은 빈번히 평균 이상의 낮은 업무수행 상태 그리고 아주 낮은 학업 또는 직업 성취 의욕을 보이고, 반면에 피해자 중에는 지나친 공포성향과 부족한 자아의식(Selbstwertgefühl)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개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연장자이다.³³⁾

라.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

연구에 의하면 독일 전체학교 중 약 7.2%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공격당하며, 카셀의 1993년 통계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7%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격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에 따라 추산하면 45,000명의 교사 가운데 2,000명 정도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도 처벌이 금지된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다. 1996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헤센 주의 2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16%, 튀링엔 주의 10%, 작센 주의 7%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 그 유형은 주먹질, 따귀, 물건던지기 또는 욕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이었다.³⁴⁾

III. 독일 학교폭력의 원인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폭력의 원인은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부모의 폭력적인 교육스타일, 과도한 미디어에의 노출 등이 학교, 수업문화 영역내에서 폭력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³⁵⁾ 과거의 이론모형이

33) Koch, Gewalt in der Realschule und Möglichkeiten der Prävention, pp. 35.

34) 김종기, 독일의 학교폭력1, p. 17.

원인-결과 메카니즘을 단편적 이유에서부터 기술해 나간 반면, 현대의 모형은 광범위하고 상호영향을 미치는 개방형 모델의 복합적 현상으로 폭력의 원인을 설명해 나가려 한다. 따라서, 폭력성향은 언제나 사회 상호작용의 영역 하에서 관찰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독자적인 행위관계로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다.³⁶⁾ 학교폭력의 다양한 원인 가운데 가장 주된 요인으로 가정, 사회, 학교가 개별적으로 또한 상호 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 가족내재적 원인

오늘날의 가정은 성장기의 청소년(Heranzwachsende)들에게 올바른 행동의 틀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점차 상실해가고 있다. 종종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은 가정에서 유래하곤 하는데 이들은 이미 아주 어린나이에 가족 공동체내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경험한 폭력은 현재의 폭력성향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는 ‘폭력의 순환(Kreislauf der Gewalt)’ 현상으로 설명되곤 한다.

폭력이 적지 않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여러 연구결과가 입증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아동학대 또는 아동폭력의 수치가 매년 20,000건에서 50,000건씩 보고되고 있다.³⁷⁾ 독일 어린이 보호연맹(der deutsche Kinderschutzbund)에 따르면(1993년) 전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약 10%가 부모에게 언어맞고 학대를 받는다. 매년 약 100명의 어린이가 부모에게 맞아서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는다. 30만명의 젊은이들은 부모의 폭력을 그냥 견디고 있다. 부모의 70%가 아이들을 가르치

35) Melzer / Schubarth / Ehniger, Gewaltprävention und Schulentwicklung, pp. 13.

36) Bründel, Heidrun / Hurrelmann, Klaus: Gewalt macht Schule. Wie gehen wir mit aggressiven Kindern um? München 1994, zit. nach Koch, Gewalt in der Realschule und Möglichkeiten der Prävention, p. 68.

37) Koch, Gewalt in der Realschule und Möglichkeiten der Prävention, pp. 71.

기 위해 매질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모든 어린이의 약 60%는 엉덩이에 매질을 당한다.³⁸⁾ 가정에서 매를 맞는 아이들은 폭력을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기 쉽고,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폭력적인 방식을 취하기 쉽다. 이러한 가정에는 교육의 부족, 미숙련 직업,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부모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³⁹⁾

그밖에도 부모가 일관성 없고 모순되며 불합리한 행동을 보이거나 사회적 행동과 관련하여 규칙을 명백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 우호적인 교육환경을 유발하기도 한다.⁴⁰⁾

2. 사회구조적 이유

가족내부로부터 제 문제를 논의코자 하는 시각과 더불어 범죄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청소년 폭력(Jugendgewalt)은 특히 다음의 상황에 주목한다.

- ▷ 부족한 민주경험(mangelnde Demokratieerfahrung)과 청소년기의 지나친 자기중심성(Ich-Zentriertheit)
- ▷ 개인간 의사소통이 곤란할 때 폭력중재 기능의 부재
- ▷ 가족해체에 따른 가정의 교육, 조정기능 붕괴
- ▷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의 부족, 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비전 부재는 좌절(Frustration), 무기력(Langeweile) 그리고 증오(Hass)를 유발
- ▷ 폭력은 일상적인 것이며 또한 관대히 취급될 수 있다고 여기는 사회 내 묵시적 행동규범의 변화

38) 김종기, 독일의 학교폭력1, p. 18.

39) 김종기, 독일의 학교폭력2, 교육개발, 통권 제147호, 한국교육개발원, 2004, p. 64.

40) Koch, Gewalt in der Realschule und Möglichkeiten der Prävention, pp. 71.

▷ 사회, 문화, 정치 불신에 의해 유발되는 청소년기 정체성의 위기 (Identitätskrise) 등⁴¹⁾

한편, 산업사회는 물질주의적 사고와 행위로 각인되어 있으며, 물질적 재화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역할의 형성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현대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돈이 세계를 지배하며 돈은 물질주의적 세계에서 개인에게 안정감과 자기 존중감을 준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고 그 간격은 점차 더 심해진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것은 결핍을 메우고자 하는 빈곤층의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빈곤층의 청소년도 또래의 다른 청소년들처럼 소비와 소유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적 문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생기는 욕구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면 청소년들은 금품갈취나 약탈 등 보다 손쉽고 재빠른 길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때 폭력은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해볼만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강도는 사회내 불평등(Ungleichheit)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⁴²⁾

또한, 현대인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연대감의 부족과 상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부여 받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한 부모 아래에서 성장한 어린이들은 이기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쉽다. 어린이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결속감이 무엇인지를 배우

41) 앞의 책, pp. 76.

42) Klewin / Tillmann / Weingart, Gewalt in der Schule, p. 1096.

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면 사람과 사물에 대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게 된다.⁴³⁾

따라서, 오늘날 고도 산업화와 금전만능주의로 인한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해체(Desintegrationsprozess)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자유의 확대는 평등의 감소를 초래하고, 평등의 감소는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회 연대의식은 희박해진다. 연대의식이 부족해질수록 사회내 개별화가 가속화되고, 개별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적 연결망은 축소된다. 사회적 연결망의 축소가 가속화되면 곧 무분별한 성취만이 강조된다.

“44)

사회적 다양성은 청소년들에게 규범과 사회적 행동양식으로부터의 탈 전통을 가르칠 수 있으나, 규범윤리적 명제가 그 불명료성에 따라 임의적으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심리적 혼란의 상태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이 제공되고 더 많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장점일 수 있지만, 지나친 다양성·다원성은 상호간 공통요소를 찾기 어렵게 하고 오히려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게 만들기 때문이다.⁴⁵⁾

한편, 정치영역에서는 9.11사태 이래로 폭력이 양적, 질적으로 새로운 양상을 띄고 있고, 발칸반도에서의 전쟁은 유럽내 인종갈등(ethnische Konflikte)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음을 보여준다.⁴⁶⁾ 이러한 사례들을 통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배경(Hintergründe)들이 청소년의 성장 및 폭력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43) 김종기, 독일의 학교폭력1, p. 19.

44) Heitmeyer, Wilhelm: Gesellschaftliche Desintegrationsprozesse als Ursache von fremdenfeindlicher Gewalt und politischer Paralyisierun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eilage zur Wochenzeitung 'Das Parlament', Nr. 2, Bonn 1993, S. 4., zit. nach Koch, Gewalt in der Realschule und Möglichkeiten der Prävention, p. 77.

45) 앞의 책, p. 77.

46) Heitmeyer / Hagan, Gewalt, p. 24.

3. 교내 환경의 영향

독일의 학교당국 내지 교사들이 종종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학교영역에서의 폭력은 항상 교내 환경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폭력과 공격적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① 지저분하고 낡고 비좁은 교실,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부족한 공간의 운동장 등 교내 시설여건, ② 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③ 3단계의 학교 교육체제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첫째, 학교 크기와 폭력발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1999년 Tilmann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의 물리적 크기와 폭력발생간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둘째, 학생지향적 수업(schülerorientierter Unterricht)은 단연코 폭력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교내에서 습득하는 바람직한 학습내용(Lerninhalt)은 정신적·심리적 폭력의 감소에 기여하고, 교외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체득하게 되는 경험(Erfahrungsmöglichkeit)은 육체적 폭력의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 전반의 분위기(Lernkultur)가 이들 요소를 지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⁴⁷⁾

마지막으로 독일 특유의 3단계 학교교육체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학교’라는 시스템 역시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한 학생들이 최소한 9년(Hauptschule)에서 10년(Realschule) 이상 머물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또한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대학이 전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어 한국과 같은 입시교육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직업교육 제도도 훌륭히 잘 갖추어져 있어 어느 곳에서든지 학교 교육을 잘 이수한다면 향후 사회로 진출해 직업세계에서 큰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5학년 과정부터 상급

47) Tilmann, Schulergewalt als Schulproblem, pp. 237.

학교가 세 갈래로 나뉘어져 김나지움(Gymnasium), 레알슐레(Realschule),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로 확정되는 독일의 학제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 하우프트슐레로 진학하는 학생, 그리고 나중에 하우프트슐레에서도 적응하지 못해 직업학교로 옮겨야만 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학교로 진학한 학생들 보다 결코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⁴⁸⁾

한편 독일의 반나절 학교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김나지움까지 대개의 수업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종료된다. 이러한 반나절 학교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에서 더욱 즐겁게 뛰어놀고, 협동작업과 다양한 적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아이들의 공격적인 에너지가 학교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⁴⁹⁾

IV. 독일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1. 학교폭력 예방 기본방향

가. 학교폭력 방지 정부위원회 (1987년)

통일전인 1987년 당시 서독 정부는 미국과 프랑스를 모델로 하여 폭력방지 및 근절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48) 독일내 자국의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의 중심에는 2020년이면 전체 학생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는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즉, 독일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함에 따른 학생간 소통의 문제가 학교폭력의 주요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지난 2008년 3월 독일 바이에른(Bayern) 주정부는 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초등학교(Grundschule) 진학 1년 전 독일어 능력시험을 치르도록 해 점수에 미달하면 유치원 과정에서 독일어 교육을 160시간 더 받도록 의무화했다. 어린이들의 독일어 시험을 거부하거나 과정에 참가시키지 않을 땐 부모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 사실을 외국인 담당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독일 정치권과 사회에서는 학교폭력과 이민자 자녀의 통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49) 김종기, 독일의 학교폭력2, p. 66.

이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학교폭력에 관한 이론적인 개념의 정립으로부터 폭력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2년여 간의 활동을 통해서 1989년 폭력방지를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몇 가지 기본 정책을 제안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 대규모 학교설립의 불허 및 소규모 학교 설치
- ▷ 학습부진 및 행동발달 문제 학생의 조기 진단 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 확대
- ▷ 청소년 폭력 및 범죄에 대한 교사 교육 강화
- ▷ 관료주의적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교사의 교육적 기능을 극대화
- ▷ ‘폭력없는 갈등해소’를 가르치는 수업
- ▷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관련 이슈와의 연계 속에서의 수업
- ▷ 성교육의 조기 실시
- ▷ 체육 수업시간의 확대
- ▷ 학교폭력 문제 발생시 교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 유도
- ▷ 교사-학생간 갈등해결을 위한 학교내 상담위원회 설치
- ▷ 기타 ‘합의’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방식의 습득을 위한 모든 주도적 노력에 대한 지원⁵⁰⁾

나. ‘민주주의를 배우고 생활한다 : Demokratie lernen & leben’ (2002.2)

고등학생 총기 난사사건인 에어푸르트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인 2002년 2월 독일정부는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인 ‘Demokratie lernen & leben(민주주의를 배우고 생활한다)’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경험적

50) 신희경, 학교폭력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p. 21.

연구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신념 그리고 폭력에 대한 거부와 반대가 장시간에 걸친 학습과 경험 그리고 실천의 결과로 나타나며 이러한 신념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중앙정부와 각 주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민주주의적인 행동능력을 높이고 민주주의적인 학교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총 1억 3천만 유로가 지원된다. 프로그램 주제는 ‘수업과 프로젝트’, ‘학교문화와 학교 조직’, ‘학교밖의 파트너와의 협력’의 세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세부주제는 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 민주주의적 행동능력, 이해중심의 학습, 민주주의적 학교풍토, 함께 하는 삶에 대한 학교차원에서의 풍토 조성, 협동학습, 갈등해결의 방법으로서의 명상, 다양한 프로젝트 실시, 학교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자가평가, 서비스 학습, 사회도덕교육, 자아효능감, 학교와 지역경제와의 연결,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연결 등으로 분류된다.⁵¹⁾

다. 독일 주정부 교육부장관회의 결의 (2002.4)

이후, 2002년 4월 26일 Erfurt에서 고등학생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독일 주정부 교육부장관회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학교의 교육사명의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관련 학교와 학생 양자간 ‘합의’ 형성
- ▷ 경찰, 청소년 선도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 지역적 연결망 구축⁵²⁾
- ▷ 스포츠 활동, 분쟁조정자 프로그램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가동 그리고 교원 재교육

51) 신희경, 학교폭력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p. 23.

52) 독일내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청소년 담당 부서와 경찰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round table panel’을 설치하여 문제점 진단 및 향후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학교심리상담사를 통한 상담기능 제공⁵³⁾

고등학생 총기난사 사건은 연일 독일내 신문과 방송에서 이슈화 되었으며 원인진단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많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독일 정부도 무기소지 가능연령의 상향조정 등 무기소지 관련 법률 강화 및 폭력물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히 무기소지법과 폭력영상물이 폭력문제의 주원인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가정 및 학교에서 두려움 없이 주위의 전폭적인 인정과 지지 그리고 도움을 받으며 이를 통해 자신감 및 자존감을 획득하는 것이 분노와 적대감 그리고 복수를 위한 폭력행동을 방지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⁵⁴⁾

라. 인지(認知) 교육에서 사회성(社會性) 교육으로 (2003년)

연방 교육심의위원회(Jugendministerkonferenz)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의 인격계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과정과 인지적 교육과정의 상호연계를 통한 교육개념의 재정립을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이 인지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수학·언어 등의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학생들이 기타의 영역에서 스스로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 역시 공격적 성향 유발인자를 통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⁵⁵⁾

53) Melzer / Schubarth / Ehniger, Gewaltprävention und Schulentwicklung, p. 24.

54) 신희경, 학교폭력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p. 22.

55) Melzer / Schubarth / Ehniger, Gewaltprävention und Schulentwicklung, p. 25.

최근 PISA⁵⁶⁾의 연구결과는 학업 성취도(Schulerfolg)가 사회적 출신 성분(soziale Herkunft)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독일보다 심한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생의 조기차별(frühe Segregation)에 기인한 독일 교육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도 해석된다.⁵⁷⁾ 따라서, 독일 교육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strukturelle Veränderung)와 사회 전 분야가 연계된 프로그램의 가동 없이 추진해 온 지금까지의 조치들은 사실상 구호에 그친 것이었으며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폭력의 원인에 따른 해결책이 교육체제의 구조적 변혁과 더불어 논의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보다 학생중심적인 수업 그리고 현장교육 강화로 인지교육에서 탈피
- ▷ 소규모 공동체 구성의 활성화로 사회규범 일탈경험의 상호교환, 제거
- ▷ 낙인화 과정(Stigmatisierungsprozess)의 제거, 단절
- ▷ 학교 일상에 있어 규범, 규칙 준수의 정착
- ▷ 경찰, 청소년 선도기관, 주민단체, 스포츠 동호회 등 학교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⁵⁸⁾

한편, 최근의 연구보고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교폭력의 발생빈도가 낮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결론은 프로근성 충만한 교사

56)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학업성취도 국제학력평가)는 의무 교육을 마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생활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읽기·수학·과학 분야별로 평가한다.

57) 2007.3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 2006. 2월 열흘간 독일을 방문했던 유엔 교육문제 특사 베르노어 무노즈(코스타리카 출신)는 독일의 교육체제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인문계와 실업계로 분리되는 ‘조기분리 교육제도’는 독일의 빈곤층, 이주민 출신, 장애우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하여 차별을 조장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독일 정부에게 현재의 교육제도를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성적에 따라 인문계인 김나지움과 실업계인 레알슐레, 하우스프트슐레 중 하나로 진학하게 된다. 세 학교 중 특히 성적이 가장 낮고 학업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이 다니는 하우스프트슐레는 이미지가 나빠, 졸업 후 진로도 좋지 않다. 이 때문에 하우스프트슐레 학생들의 사기가 더욱 떨어지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도 많아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교육 ‘인문-실업 조기분리’ 논란”, 한겨레, 2007. 4. 6.

58) Melzer / Schubarth / Ehniger, Gewaltprävention und Schulentwicklung, pp. 162

진, 화기애애한 학교 분위기(Lernkultur), 활발한 참여문화를 가진 학교에서는 성적에 대한 심리적 압박, 학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문제성 있는 행동양식을 보이는 학생의 출현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 대신에 학업에 대한 즐거움과 긍정적 학습동기 부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⁵⁹⁾⁶⁰⁾

2. 중재(Mediation) 프로그램

학교폭력의 해결과 관련하여 중재(Mediation)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다.

가. 분쟁조정자 프로그램 (Streit-Schlichter-Programm : Peer Mediation⁶¹⁾)

갈등당사자 양자의 동의하에 제3자가 갈등의 해결을 시도한다. 갈등조정자(Mediator)는 갈등당사자 양자의 한 가운데(inmitten)에 위치한다. 조정자는 갈등의 모든 과정을 구조화하고, 또 단계별 조정 진행의 임무를 부여받는다. 갈등당사자들은 조정자의 결정이 해당 이해관계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해조정임을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⁶²⁾

59) Melzer / Schubarth / Ehninger, Gewaltprävention und Schulentwicklung, p. 40.

60) "... 그동안 학교폭력은 학습능력이 저지는 학생이 진학하는 하우프트슐레에서 빈발해 왔다. 이민자 자녀 학생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이민자 자녀 학생비율은 인문 중고등학교인 김나지움이 4.1%, 기술학교인 레알슐레가 7.2%, 종합학교인 게잠트슐레가 13.1%인 반면 하우프트슐레는 18.7%나 된다. 이번에 문제가 터진 뤼틀리 슈레는 독일인 학생이 16.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터키, 중동, 모로코, 발칸 지역 출신 이민자 자녀들이다...", "칼·몽둥이 등교... 獨 학교폭력 중증", 세계일보, 2006. 4. 7

61) Peer Mediation : 동료간 화해 프로그램, 또래 조정 등으로 번역되며, 뉘른베르크(Nürnberg)의 비스마르크 하우프트슐레(Bismark Hauptschule)의 모든 학급에는 분쟁중재자가 있는데 "때리지 말고 대화로"라는 봉사그룹에서 쉬는 시간마다 매일 두 명의 학생이 오렌지색 조끼를 입고 나와 싸우는 학생들에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62) Melzer / Schubarth / Ehninger, Gewaltprävention und Schulentwicklung, pp. 193.

조정자의 교육에는 약 20~100시간이 소요되며,⁶³⁾ 그간의 활동결과는 중재의 효과성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간 이들이 어느 정도 중재내용에 수긍하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의 정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⁶⁴⁾

이 프로그램은 처벌중심의 전통적인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해악을 치유할 목적으로 함께 모여 논의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학교폭력을 다루는 방식은 국가나 학교가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통해 재발을 억제하는 방식이었지만, 회복적 사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를 통해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느끼고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는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받은 신체적·정신적·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키워드는 ‘관련 당사자들의 대화’이다.⁶⁵⁾⁶⁶⁾

나. 대(對) 스트레스 팀 (Anti-Stress-Team)

‘Anti-Stress-Team’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분쟁조정자 프로그램의 변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갈등상태 하에 있는 갈등당사자인 학생들 스스로가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문

63) 2007.2월 학교폭력 15대 주요과제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또래 상담자’ 제도는 비슷한 연령의 학생들이 상담훈련을 받은 후에 또래 친구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또래 상담자 양성을 통해 교실 내외 학교폭력 현장 모니터를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64) Melzer / Schubarth / Ehniger, Gewaltprävention und Schulentwicklung, pp. 194.

65) 박수선, “학교폭력, 대화로 풀어요”, 이데일리, 2006. 9. 13.

66) 독일 형법은 원상회복(Wiedergutmachung) 및 가해자-피해자-화해(Täter-Opfer-Ausgleich)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제가 되고 있는 갈등상황에 대한 풍부한 사전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자의 교육에서는 특히 육체노동, 활동 그리고 역할극(Rollenspiele) 등이 강조된다.⁶⁷⁾

다. Coolness Training

Coolness Training은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으로서 ① 폭력성향이 강한 아동(Kinder)과 청소년(Jugendliche) ② 그들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피해자(Opfer) 그리고, ③ 양 당사자의 갈등상황에 개입한 바 없는 관찰자(Beobachter)⁶⁸⁾가 참여하여 상호간 행동변화를 자극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어느 누구도 타인을 모욕하고, 해치거나 따돌림 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호 대립할 수 밖에 없다는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규범의 명확화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행동한계의 설정에 기여함으로써 참여자 스스로 부지불식간 행동변화(Verhaltensänderung)의 주체가 된다.⁶⁹⁾

3. 온종일 학교 및 학생 작업장 프로그램

온종일 학교(Ganztagsschule)는 TV나 컴퓨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오후에 학교에 머무르면 TV앞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동시에 스포츠를 하거나 협업집단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종일 학교는 독일정부가 교육에서의 기회균등 확대, 학교가 학생들을 더 많이 돌보면서 학생들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7) Melzer / Schubarth / Ehniger, Gewaltprävention und Schulentwicklung, pp. 197.

68) 앞의 책, pp. 202.

69) 앞의 책, pp. 203.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반나절 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한 그 속에서 학교폭력을 해소하는데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 작업장(Schulerwerkstatt)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에 동료들과 함께 공동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작업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 이외에도 학부모, 교육청 직원, 각 분야 전문가, 미술가, 음악가, 기술자들이 교육자로 참가할 수 있고, 학생들은 각기 특성화된 작업장에서 모형배 제작, 자전거 조립, 학교가구 만들기, 공동 그림그리기, 콘서트 기획과 연습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생 작업장 프로그램은 공교육 만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공동체적 토론 및 민주시민 교육을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⁷⁰⁾

4. 학교폭력 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독일의 상당수 주에서는 학교폭력을 감시하고 선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유기적 연결시스템을 확보·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내의 경찰서, 행정공무원, 학교장, 학생심리 상담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청소년 지도자, 자원봉사자, 교회, 정신병원, 라이온스 클럽 등 모든 제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두고 있다.⁷¹⁾

70) 김중기, 모범적인 다섯 개의 폭력예방 프로그램, 교육개발, 통권 제153호, 한국교육개발원, 2005, pp. 98.

71)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이상 발달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각자에 알맞은 교육 및 치료를 행할 수 있는데, 일선 학교는 지정된 담당 병원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교사와 모든 학부모가 참가하는 학부모 모임(Elternabend) 및 매달 개최되는 학부모 정례회의(Elternstammtisch)가 구성되어 교사 및 관계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한다.

라인강 상류의 오버러 라인가우(Oberer Rheingau)시에서는 위와 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 학교 단위에서 상설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 ‘자기 확신과 강하게 되기’, ‘네 속의 사자를 깨워라’, ‘주먹 안쓰기’, ‘폭력없이 강하게’⁷²⁾, ‘유치원에서의 다툼 훈련’⁷³⁾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스케이트, 록 콘서트, 벽화 그리기 경연 대회 그리고 ‘여학생 자기방어 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개설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의 자존감, 자신감을 일깨우고 북돋워주며, 학생들의 정열적 충동이 건강한 에너지로 발산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확대 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학교와 학부모를 둘러싼 지역공동체 전체를 실질적으로 아우르는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⁷⁴⁾

5. 폭력예방을 위한 행정적·법적 조치

한편, 독일학교법(Schulrecht)에 따르면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의 법원판결은 어떤 학생이 동료학생을 실제로 폭행하지 않았어도 폭력을 행사하려고 협박하고 그것이 실제 위협으로 여겨진다고 간주될 수 있고, 해당 학생에게 벌청소, 방과후 남아있기 등 다른 조치가 효과가 없을 때, 일정기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판시했다. 또한 최근에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마약소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마약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⁷⁵⁾

72) 학생 상호간 서로 시비가 생길 때의 행동요령, 방식을 교육하는 경찰청 주도의 프로그램

73) 정규학교 입학 전의 단계인 유치원(Kindergarten)에서부터 행해지는 폭력예방 프로그램

74) 김종기, 모범적인 다섯 개의 폭력예방 프로그램, p. 100.

75) 김종기, 독일의 학교폭력2, p. 68.

더 나아가 이미 수년 전부터 일부 주에서는 경찰이 순찰을 통해 무단 결석 학생을 발견하면 곧바로 학교로 인도해 교장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시의 청소년 담당 판사는 22명의 무단결석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중 각각 1주에서 3주간 구류시설에 구금되어 있을 것을 명령했다. 그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모두 과거에 절도, 상해, 강도 등의 범죄전과가 있는 학생들이며, 구금의 목적은 규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고, 이들이 방학동안 즐기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학생들의 부모는 이 판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⁷⁶⁾

6. 소년법과의 관계

소년법에 대해 형량가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형벌의 위하에 따른 폭력행위의 중단은 처벌의 위하가 약해지면 또 다시 행사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하위 단계의 조치일 뿐이라는 반론에 의해 극복되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소년법의 처리에 있어 삶의 극복능력(Lebensbewältigungskompetenzen)과 자아의식(Ich-Stärke)의 배양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⁷⁷⁾

연방법무부(Justizministerium)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독일 전역에 수감되어 있는 소년 형사범의 수는 약 7,000여명에 달하고, 여성 소년범의 비율은 단지 5%에 불과하다. 재범률은 78%로 매우 높은 편이다.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2006년 5월 입법자에게 소년범의 형집행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들을 입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연방법무부가 마련한 법률 초안에는 최소 2/3에 해당하는 소년 수

76) 김종기, 독일의 학교폭력2, p. 69.

77) Melzer / Schubarth / Ehniger, Gewaltprävention und Schulentwicklung, p. 24.

감자에게 단순노역 부과 대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기회를 우선부여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12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소년범죄의 기준연령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소년 행형법을 강화(streng)할 것인지 아니면 약화(lasch)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행형법의 연방제도 개혁과 함께 주별 소년 행형법의 개정권한이 모두 지방정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소년 행형법의 개정 여부 내지 그 정도가 주별로 상이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적인 조치를 주장하는 주정부에서도 부족한 재정상태로 인해 소년 재소자 교육원칙의 변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⁷⁸⁾

7. 다이버전(Diversion)⁷⁹⁾

1980년대 이래 형사정책의 주류로 등장하여 각국 형사절차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다이버전(Diversion)의 경우, 독일은 1990년 소년형법(Jugendgerichtsgesetz : JGG) 제45조와 제47조에 이를 수용하였다.

독일 소년형법 제45조는 형사소송법 제153조가 규정하는 1) 책임이 경(輕)하고 2) 형사소추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3)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판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합치적 재량(pflichtgemäßes Ermessen)에 따라 검사(Staatsanwaltschaft : StA)가 형사소추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는 제4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안이 형사소추된 경우 판사(Richter)가 검사의 동의하에 그 형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8) <http://de.news.yahoo.com/07062006/336/betreuung-jugendliche-straftaeter.html>(08.3.30)

79)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번역

결국 소년범의 경우 법이 규정하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형사절차를 배제하고, 교육과 교화를 포함한 비(非)사법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년의 낙인적 처벌 회피, 2차범죄 예방 및 범죄경력화 방지 등의 형사정책적 목표를 달성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에서의 다이버전은 결국 그 주체가 검사와 판사로 제한되고, 경찰의 경우 소년범에 대한 훈방 또는 형사절차로의 진입 역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최근 독일의 일부 주를 시작으로 『경찰을 통한 다이버전(Diversion durch Polizei)』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어 소년범에 대한 경찰 훈방권의 입법적 토대가 점차 마련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즉, Schleswig-Holstein과 Berlin 주의 다이버전 지침(Diversionsrichtlinien)⁸⁰⁾은 경찰이 절차중지(Einstellung)⁸¹⁾를 위한 전제조건(Voraussetzungen)을 스스로(selbst) 조성(schaffen)하고,⁸²⁾ 검사에게 소송절차를 중지할 것을 제안(Vorschlag)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더불어 경찰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 원상회복(Wiedergutmachung) 및 가해자-피해자-화해(Täter-Opfer-Ausgleich)를 유도(anregen)할 수 있음은 물론, 교육적 대화(Erziehungsgespräch) 및 훈계·경고(Verwarnung)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소년형법도 소년범에 대한 경찰조사 종료 후 관련서류를 검찰로 송부하고, 이 때 다이버전에 근거한 형사절차로부터의 배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절차 배제인 훈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80) 독일 연방 16개주 가운데 개별 주별로 다이버전 지침(Diversionsrichtlinien der Bundesländer)을 두고 있는 주는 Berlin, Bremen, Thüringen, Hamburg, NRW, Sachsen, Schleswig-Holstein, Saarland 주 등 8개주이다.

81) Einstellung - 직역하면 절차중지가 되나 여기서는 형사절차로부터의 배제 즉, 훈방을 의미한다.

82) 독일 소년형법(JGG) 제45조 제2항에 따른 소송절차 중지(훈방)의 전제조건은 첫째, 교육적 조치가 이미 행해졌거나 진행중에 있을 것 둘째, 피해자와의 화해에 이르기 위한 소년의 노력이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Diversion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찰이 교육적 조치에 관여하거나 피해원상 회복을 적극 독려하였을 것 등이다.

8. 독일 학교폭력 대처방안의 의의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의 학교폭력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 여겨진다.

첫째, 정책적 제안은 일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기술적 대처방안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한 갈등해결의 학습이나 관용의 실천 등을 중시함으로써 폭력방지 및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이의 장기적인 수행계획을 바탕으로 현 단계에서의 과제를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둘째, 중앙 및 주정부 차원에서 제시되는 정책적 과제는 뚜렷한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실현의 결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가능하다.

셋째, 위와 같은 정책이 실제 일선 학교에서 실현되는 과정에서 각 학교에서의 문제와 특성 그리고 교육목표와 역량에 따라 실천 프로그램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어서 정책수행이 형식적이지 않고 내면화되어 있다.

넷째, 일선학교의 관련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목적과 탄생배경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물리적·조직적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전문성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고 있다.⁸³⁾

그러나, 현재 독일 청소년 폭력의 실태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방지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폭력 발생률의 뚜렷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⁸⁴⁾

83) 신희경, 학교폭력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p. 26.

84) Klewin / Tillmann / Weingart, Gewalt in der Schule, p. 1079.

예컨대 2004년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청소년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연령은 13세에서 16세 사이로 낮아져 초등학교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폭력행사의 과반수 이상이 남학생과 외국인 이주민 가정 및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자녀들이며 이들 가정은 명확한 교육방침이 부재하거나 부모의 지지와 인정이 결여된 잘못된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2월에는 하노버(Hanover)에 있는 한 직업학교에서 한 학생이 오랫동안 또래집단에 의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온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학교의 교장은 이와 같은 사태가 독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가정적 원인에 대한 개입이나 학부모 교육과 같은 지원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⁸⁵⁾

V. 맺음말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독일 학계는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으나, 많은 학자들은 이론적·방법론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연구가 대부분 설문조사에 의거한 계량적 방법에 편중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⁸⁶⁾ 따라서 독일의 학교폭력 연구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의 도입을 통해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보완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는 일종의 전환점에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5) 신희경, 학교폭력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p. 25.

86) 물론, 독일이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의 성패가 단순한 계량적 수치에 의해 평가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의 실태가 점점 더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독일의 성공사례를 취사선택하여 학교폭력 사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특성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향이 수립되고 이를 정책화 하는 과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을 포함한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정보교환에 따른 단계별 과제를 도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 2월 정부가 지역사회의 민·관이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해학생 특별교육 강화 및 피해학생 신변보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15대 주요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과제 가운데 경찰청 주도로 행해지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 ‘배움터 지킴이 배치’⁸⁷⁾, ‘피해학생 신변보호 지원’,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의 과제는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축에 위치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더 적극적인 경찰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⁸⁸⁾

87) 경찰청의 08' 액션플랜의 주요과제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05.5월 부산경찰청 ‘스쿨폴리스’ 7개교(14명)를 시작으로 '07년 667개교(772명)에 이르던 중 '08년 현행 ‘배움터지킴이’로 확대 개편되어 '08.5월 현재 전국 초·중고 11,192개교 중 총 1,023개교 1,039명이 활동중에 있다. 이에는 퇴직경찰관 637명, 퇴직교원 247명, 상담사 155명이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 내부자료.

88) 2008년 경찰청의 액션플랜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과 관련하여 ‘경찰단계 선도조건부 불입건’으로 가해학생 재비행 방지, ‘배움터 지킴이’ 운영 활성화, ‘범죄예방교실’ 적극 운영, ‘명예경찰소년단’ 활성화로 준법정신 고양,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 확대, ‘사랑의 교실’ 활성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경찰청 내부자료.

참 고 문 헌

I. 단행본

- Heitmeyer, Wilhelm / Hagan, John: Gewalt. Zu den Schwierigkeiten einer systematischen internationalen Bestandsaufnahme. In: Heitmeyer, Wilhelm / Hagan, John (Hg.): Internationales Handbuch der Gewaltforschung.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2002, pp. 15-25.
- Imbusch, Peter : Der Gewaltbegriff. In: Heitmeyer, Wilhelm / Hagan, John (Hg.): Internationales Handbuch der Gewaltforschung.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2002, pp. 26-57.
- Klewin, Gabriele / Tillmann, Klaus-Jürgen / Weingart, Gail : Gewalt in der Schule. In: Heitmeyer, Wilhelm / Hagan, John (Hg.): Internationales Handbuch der Gewaltforschung.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2002, pp. 1078-1105.
- Koch, Matthias : Gewalt in der Realschule und Möglichkeiten der Prävention. Marburg: Tectum Verlag, 2002.
- Krämer, Leo: Die Gewaltproblematik im französischen und deutschen Schulsystem. Überlegungen für eine vergleichende Analyse. In: Lamnek, Siegfried (Hrsg.): Jugend und Gewalt. Devianz und Kriminalität in Ost und West. Opladen: Leske + Budrich, 1995.

Melzer, Wolfgang / Schubarth, Wilfried / Ehniger, Frank :
Gewaltprävention und Schulentwicklung. Analysen und
Handlungskonzepte. Bad Heilbrunn: Klinkhardt, 2004.

Tillmann, Klaus-Jürgen u.a.: Schüलगewalt als Schulproblem.
Verursachende Bedingungen, Erscheinungsformen und
pädagogische Handlungsperspektiven. Weinheim und
München: Juventa, 1999.

Von Felten, Mirjam : '... aber das ist noch lange nicht Gewalt'.
Empirische Studie zur Wahrnehmung von Gewalt bei
Jugendlichen. Opladen: Leske + Budrich, 2000.

II. 논문

김종기, 독일의 학교폭력1, 교육개발, 통권 제146호, 한국교육개발원,
2004, pp. 15-19.

_____, 독일의 학교폭력2, 교육개발, 통권 제147호, 한국교육개발원,
2004, pp. 64-69.

_____, 모범적인 다섯 개의 폭력예방 프로그램, 교육개발, 통권 제
153호, 한국교육개발원, 2005, pp. 93-100.

신희경, 학교폭력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육정책포럼, 제
113호, 한국교육개발원, 2005, pp. 21-27.

장일순, 독일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통권 제17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9, pp. 255-274.

Ⅲ. 기 타

“칼·몽둥이 등교... 獨 학교폭력 증증”, 세계일보, 2006. 4. 7.

“獨 중등학교 교사 3명중 1명 탈진 상태”, 연합뉴스, 2006. 4. 8.

“학교폭력, 대화로 풀어요”, 이데일리, 2006. 9. 13.

“독일교육 ‘인문-실업 조기분리’ 논란”, 한겨레, 2007. 4. 6.

“Mehr Betreuung für jugendliche Straftäter. Meldung der Nachrichtenagentur ddp vom 7. Juni 2006.”, <http://de.news.yahoo.com/07062006/336/betreuung-jugendliche-straftaeter.html>, 2008. 3. 30.

책임연구보고서 2008-26

독일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고찰

발행일 : 2008년 12월 26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